

# 녹색 둘레길·명품 숲으로 걷기 좋은 목포 만든다

### 부흥산·입암산 둘레길 추가 조성 삼학도 무장애길 등 6월 착공 시가지 나들목에 사계정원 5곳

목포시가 녹색둘레길을 비롯해 명품 숲 조성 등으로 살아 숨 쉬는 도심환경 개선에 나섰다. 목포시는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발맞춰 녹색둘레길을 조성하고 삼학도 테마경관, 미세먼지 차단숲, 명품 가로수길 등을 만들 계획이다. 녹색둘레길은 목포 도심 어디서나 300m 안에서 도시숲과 둘레길을 만나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이 사업은 도시 생활권에 이미 조성된 '걷기 좋은 녹색 둘레길' 104.2km를 기존 길과 함께 조성한다. 걷기 좋은 녹색둘레길은 생활권 녹색둘레길 71.2km, 목포 녹색둘레길 33km 등으로 나뉜다. 생활권 녹색둘레길은 원도심권에 유달산둘레길, 철도웰빙공원, 양울산 둘레길, 산정산, 코끼리산,

삼학도 숲길, 북항완충녹지, 영산기맥 등 44.2km가 조성돼 있다. 여기에 신도시의 부흥산과 부주산 둘레길, 삼향천길, 십자형도시숲, 입암산 둘레길 하당트레킹길 등의 27km 구간이 포함된다. 시는 목포 도심을 연결하는 '녹색 둘레길 조성' 구상용역에 들어가 연차 사업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과 시민의 산책 코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강한 도시 숲'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삼학도에 다양한 테마경관을 연출해 관광명소로 꾸미기 위한 사업에 총 58억여원을 투입한다. 삼학도 일원에 어울림 테마놀이터, 플라워 가든, 향구전망대, 무장애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꽃길만 걸어가는 도시 목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10월과 11월 열리는 제 104회 전국체전과 제 43회 장애인체전 등 양대 체전의 분위기를 띄우고 2000만 관광객 시대 사계절 꽃피는 도시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가을꽃 메리골드 등 10종에 25만본과 국화



목포시가 녹색둘레길과 명품 숲 등을 조성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삼학도 숲길. <목포시 제공>

5000본을 시 직영으로 육묘 생산해 교통섬과 가로화단장식에 나서는 등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 시가지 주요 나들목에는 사계정원을 5개소

만들고 대단위 자투리땅 6500㎡에는 꽃피 파종해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탄소 중립으로 무장한 녹색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부으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세계자연기금, 완도 찾아 2박 3일 해조류 양식 시설 견학

### 세계 최대 규모 환경보전 단체 "해조류 미래먹거리로 키워야"

세계자연기금(WWF)이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를 방문해 해조류 양식시설을 견학했다. 완도군은 지난 4~6일 2박 3일 동안 세계자연기금 관계자와 영국·미국·캐나다 등지 해조류 관련 종사자들이 완도 해조류 양식장과 가공시설을 찾았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자연 보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힘쓰는 세계 최대 규모 환경보전 단체이다. 인천대학교 김장근 교수와 해조류 양식산업 발전과 연구·어업인 교류 협력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완도는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꼽힌다. 지난해 3000여 어가는 다시마 14만8687t을 생산했는데, 이는 전국 생산량의 71% 비중을 차지한다. 매생이는 전국 69%에 달하는 2377t(304가구)을, 미역은 전국 40% 비중을 28만290t(3186가구)을 생산했다. 이외 5529t과 김 7만3934t을 지난해 생산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영국·미국·캐나다 어업인들이 지난 4~6일 2박 3일 일정으로 완도 양식장과 가공시설을 견학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를 찾은 해조류 관련 종사자들은 완도에서 난 해조류 음식을 맛보고 지역 어촌계 운영 방식과 양식 기술, 가공품 생산 방식, 해조류 양식 어구, 양식 순기(順氣) 등을 배웠다. 세계자연기금 소속 물리 굿라 씨는 "해조류 양식 과정에서 담수나 비료가 필요하지 않고 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점, 다시마와 알긴산은 목속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점 등 해조류의 우수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해조류가 세계인이 즐기는 미래 먹거리가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일 완도군 수산경영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해조류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주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jung@

## 신안군-가스기술공사 수소충전소 구축 협약

### 압해읍에 60억원 들여 설치

신안군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신안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신안군-한국가스기술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지난 6일 열린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운봉 사장 등 관계자 16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수소충전소는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압해읍 농업기술센터 뒤편 압해-송공간 신철도로 인근에 설치될 계획이다. 생산된 수소를 튜브트레이러로 공급하는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구축돼 1일 780kg(버스 40대)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와 충전소의 운영·안전관리 등 수소 기반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시켜 얻은 전기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순수한 물만 배출해 전기차와 함께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신안군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올해 무공해차인 수소자동차 3대와 전기자동차 200여대를 구매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수소 승용차 보급뿐 아니라



기존의 신안군 공영버스를 점차적으로 수소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수소대중교통 체계를 갖춰 수소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라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수소차 이용자들도 방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정 신안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무안군 관광지 3곳 입장료 지역화폐로 환급



무안향토갯벌랜드 등 무안지역 유료 관광지 3곳은 이달부터 입장료를 내면 전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이달부터 유료 관광지 3곳 입장료 전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입장료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곳은 무안향토갯벌랜드,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밀리터리테마파크 등 3곳이다. 무안향토갯벌랜드 어른(개인) 입장료는 4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 2000원 등이다. 전남 서남권 대표 관광지인 무안향토갯벌랜드는 국내 1호 습지보호지역이며 갯벌도립공원, 람사르습지 1732호로 지정·등록됐다.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와 밀리터리테마파크 어른 입장료는 각 2000원이다. 입장료 1매당 1000원 미만 결제하면 지역화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무안지역 가맹점은 전통시장과 식당, 숙박시설 등 지난달 말 기준 3857곳이다. 가맹점은 무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진도 친환경 바나나 수확 한창...올 80t 출하

아열대 작물을 신소득작목으로 키우고 있는 진도군에서 무농약 친환경 바나나(사진) 수확이 한창이다. 진도읍과 지산면 일대에서는 0.6ha 규모 바나나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재배를 시작했으며 올해는 바나나 80t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진도군은 내다봤다. 전남지역에서 재배된 바나나는 숙성이 덜 된 상태로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바나나보다 신선하고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는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난방비 부담이 덜한 덕분에 아열대 작목 재배 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진도에서 재배된 바나나는 당도가 사과의 2배 수준인 22브릭스에 달한다. 진도 농가는 화학농품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나 미생물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친환경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대는 직거래 때 1kg당 1만원이다. 진도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진도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작물은 부지화, 감귤, 레드향, 애플망고, 바나나 등이 있다.



지역 105가구가 총 56ha 면적에서 아열대 작물을 키우고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영암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15% 인하

### 고물가 속 생활비 부담 완화

영암군이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시기는 오는 5월 1일부터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 봉투의 경우 540원에서 460원으로 80원이 인하된다. 75ℓ 봉투 가격은 2040원에서 1730원으로 310원 인하된다.

주민들의 약화된 경제사정 개선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판매소)에게는 올해 공급분에 대해 재고량을 파악 후 잔량에 대한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나 소비자가 인하 이전에 구매한 쓰레기 봉투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고통을 나누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영광군 '옥당 동부' 재배 신청...올 50t 생산

영광군이 영광모시임송편 속재료로 쓰이는 국산 옥당 동부 재배 신청을 받는다. 영광군은 올해 동부 50t 생산을 위해 동부 재배단지 50ha 조성을 목표로 '2023년 영광산 동부 자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리적표시제를 기반으로 영광모시임송편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 최소 신청면적이 0.1ha(300평) 이상이며 신청 희망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월 중 재배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부 재배기술 교육과 함께 동부 우량종자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수확한 동부는 영광농협을 통해 수매하고 관내 떡 모시임송편 가공업체에 판매할 예정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떡 가공업체와 농업인 간 직접적인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순도 높은 동부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수 기자 jylee@kwangju.co.kr

## 신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어르신 디지털 적응 지원”

신안군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경로당을 6월까지 구축한다. 신안군은 사업비 5억60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경로당에 화상플랫폼, 체험형 기오스크, 경로당 통합·관리 원격서비스 등을 설치한다. 디지털 체험존을 조성하고 교육·문화·오락·복지 상담·건강상담 등의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용 키오스크로 기차·버스표 예매, 음식 주문, 병원 접수, 영화 티켓 예매 등 다양한 상황별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화상 시스템을 구축해 체조교실, 노래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사업 대상은 읍면당 2곳으로 총 28곳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